

2011.12.14 일본군 위안부 퍼포먼스

정 정엽

“13살 이었어... 일본 전체를 준 들 상처 냈잖나” 김원옥 할머니의 인터뷰 내용이다. 2011년 12월14일은 할머니들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의 수요 집회가 1000회를 맞이하는 날이다.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으로 1인시위형식의 퍼포먼스를 준비한다. 장옷을 쓰고 색실로 수놓은 검은 천을 메 달고 서 있는 형식이다. 한국사회에서 1인 시위는 가장 절실한 삶의 퍼포먼스이다. 아무에게도 방해를 주지 않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행 할 수 있는 실존의 목소리이다. 묵언으로 진행되는 이 퍼포먼스는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스스로의 삶을 증언한다. 장옷은 한국여성들이 외출할 때 썼던 치마이다. 집을 나 설 때 장옷을 써야 했던 과거는 익명으로 살아야했던 여성현실을 보여준다. 지금 여기서 장옷을 쓰고 외롭게 서 있는 1인 시위 형식의 이 퍼포먼스는 제외된 존재로서의 일본군 위안부 현실을 드러낸다. 꽃 같은 나이에 외출했다 가장 추악한 폭력 앞에 감금당한 채 돌아오지 못한 그녀들은 21세기 한복판, 지금도 떠돌고 있다.